
부모로부터 분리 못하는 남편과 갈등하는 부인의 부부치료

박 태 영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임 승 희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1. 서론

가족치료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교육을 받아왔던 부모에 대한 효사상과 가족문제가 서로 깊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러한 효사상이 실제로는 많은 부부와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가족성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심리·신체적 증상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 물론 효를 강조하는 것이 전적으로 잘못되었거나 전적으로 효가 우리의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친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유지했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해야만 한다는 사고가 결혼한 부부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박태영, 2003).

본 연구에서는 아들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부모가 아들 내외를 간섭하여 아들 부부관계가 악화되고 심지어 부인과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남편을 부인을 구타하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우울증으로 신경정신과를 다녀온 사례를 연구자가 가족치료를 한 사례연구이다.

II. 치료에 대한 이론적 근거들

1. Murray Bowen의 가족체계이론

본 사례에서 남편은 결혼을 하여 다시 살 된 자녀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정서적인 분리를 하지 못하였다. 부모 모두 아들 내외에 대하여 간섭하였고, 남편은 그러한 부모들에게 항상 순종하는 장남의 역할을 해 오고 있었다. 그러한 남편의 미분화로 인하여

부인은 어려움을 겪었고, 시댁문제로 인하여 잦은 다툼이 일어났으며, 시댁과의 문제에서 남편은 항상 시부모의 입장에서 부인을 충고하려고 하였다. 가족생활주기 상에서 신혼부부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장남으로서 아들의 역할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고, 남편으로서 부모로부터 독립된 부부하위체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치료자는 가족체계이론을 활용하여 시부모로부터 남편을 분리하고자 하였다.

2. MRI의 의사소통이론

본 사례에서는 남편이 시댁과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부인에게 일방적인 강요와 그에 응해주지 못하는 부인과의 의사소통 표현방식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두 사람간의 관계를 악화시켜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치료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왔던 역기능적인 방식을 찾아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하고자 하였다.

III. 사례개요

본 연구는 남편(33세)이 부모로부터 분화가 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부인(29세)과 시부모간에 갈등을 겪고 있는 사례이다. 특히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부부가 부정적이며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였으며, 이러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부인에 대한 남편의 폭력이 수반되기도 하였다. 부부사이에 5세 된 아들이 있었는데 부모가 싸울 때 마다 아들은 장염과 귀가 아프거나 배가 아픈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부부간의 문제는 남편의 부모로부터의 미분화, 고부간의 갈등과 부부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근거로 하여 부부간의 기능적인 의사소통, 남편의 부모로부터의 자아분화, 그리고 고부간의 갈등 해결과 시댁과의 관계 향상을 치료목표로 두었다.

IV.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남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인을 위한 부부 치료를 한 사례에서 상담 전에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발견해 보고 부부관계의 악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부인의 증상과 현상들을 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치료를 통하여

부부관계 향상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연구 질문

위에서 언급한 연구 목적을 중심으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간의 갈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무엇인가?

둘째,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클라이언트의 증상과 현상들은 무엇인가?

셋째, 부부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무엇인가?

V. 연구방법 및 분석

1. 연구대상 및 상담기간

본 연구는 남편과 부인을 중심으로 한 부부치료를 한 사례로서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총 9회 상담을 진행하였고, 첫 1회 상담은 부부상담을 하였고 그 이후로는 개별상담과 부부상담을 진행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사례의 분석방법으로는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과 부부관계의 악화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는 부인의 증상 및 현상들 그리고 부부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축어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근거이론의 활용은 부부갈등과 관련된 기존의 요인들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요인들을 발견하기에 적합한 분석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을 통하여 축어록상에서 개방코딩을 활용하여 기본적으로 개념들을 명명하고, 축코딩을 활용하여 이러한 개방코딩을 통하여 나타난 개념들 사이에서 유사한 성격을 가진 개념들을 통합하여 범주화를 시켰다 또한 축코딩을 중심으로 하여 선택코딩 작업을 통하여 연구자가 폭식과 기타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요인들을 도식화하였다.

V. 상담내용 분석

1. 상담 전 부부갈등 관계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 관한 분석

(1) 남편의 원가족과의 미분화

- 1) 남편이 부모님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태도
- 2) 부인을 변화시키려는 남편의 태도
- 3) 남편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배신감과 두려움
- 4) 명절마다 싸우는 부부관계
- 5) 전통적인 장남의 역할과 가족문화의 차이
- 6) 시아버지의 엄격한 기준과 과도한 역할기능

(2) 부인의 원가족과의 미분화

- 1) 남편에 대한 집착
- 2) 남편에게 자주 전화하라는 부인의 지나친 요구
- 3) 지나치게 시부모를 잘 챙기는 부인

(3) 시부모의 며느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 1) 며느리에 대한 시아버지의 비하적인 태도
- 2) 시부모의 학벌로 인한 차별대우

(4)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

- 1) 부인과 시부모와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
 - ① 아들을 중개자로 대화하는 시부모의 의사소통방식
 - ② 시부모간 그리고 시부모와 며느리의 의사소통방식
 - ③ 원가족으로부터 영향 받은 부인의 의사소통방식

2) 부부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

- ① 부인을 소외시킴
- ② 부인의 편을 들어 주지 않는 남편의 의사소통 방식

2. 고부간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부인의 증상과 시아버지의 현상

- (1) 부인의 신경성 위염 및 심리·신체적 증상
- (2) 시댁식구 만나기를 두려워 함
- (3) 남편의 인식의 변화에 따른 시아버지의 노여움

3. 상담 후 부부관계의 회복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 관한 분석

- (1) 부부문제에 대한 남편의 인식의 변화와 원가족과의 분리를 시도함
 - 1) 남편의 부부문제에 대한 인식
 - ① 부모로부터 분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임
 - ② 부인을 무시했던 남편의 인식
 - 2) 남편의 인식의 변화와 부인의 시댁에 대한 시각의 변화에 대한 요구
 - 3) 남편의 변화된 태도
 - 4) 부인의 변화된 태도
- (2) 부부문제에 대한 부인의 인식의 변화와 원가족과의 분리를 시도함
 - 1) 부인의 부부문제에 대한 인식
 - 2) 원가족으로부터 탈출을 위한 결혼
 - 3) 구정 때 시댁을 방문하지 않기로 함
 - 4) 시할머니의 생신에 참석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괴로움
- (3) 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
 - 1) 부부간의 변화된 의사소통방식
 - 2) 남편이 부인을 입장을 대변해 주는 의사소통 방식
- (4) 부인이 자신의 삶을 찾아 나섬
 - 1) 보육교사 자격증 등록예정

VI . 결론

이 사례는 가족생활주기 상에서 신혼부부단계에서 부부중심으로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효사상으로 인하여 남편이 자아분화가 안 된 사례였다. 상담과정의 축어록을 중심으로 3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하였다. 첫째, 상담 전 부부갈등 관계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 관한 분석을 하였다. 둘째, 고부간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나타나는 부인의 증상과 시아버지의 현상을 분석하였다. 셋째, 상담 후 부부관계의 회복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 관한 분석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시택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부인이 힘들어하면서 남편과는 대화가 안 되었던 부부를 부부치료 중심으로 부부간의 기능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변화와 남편의 부모로부터 분화를 통하여 건강한 부부관계를 회복하였고, 이러한 부부관계의 향상으로 인하여 아들의 심리·신체적 증상이 사라지는 결과를 보였다.